

시민교육, 흥미와 당위 사이

글 · 서미화 mh9811044@lycos.co.kr

정인년인 올해는 60년만에 돌아온다는 백호랑이띠라고 한다. 또 이번 해는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다. 어딜 가든 올해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찬 덕담들을 주고받는다.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시민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이미 작년엔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총회 준비와 함께 지난 사업 평가와 사업 준비가 한창일 것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볼런티어21에서도 주요 사업인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볼런티어21은 시민들의 의무이자 권리인 자원봉사라는 실천활동을 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한다. 우리 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개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원봉사를 제안하고 이를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거나 자원봉사 교육을 하고 있다. 성인 인구의 20%가 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중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3분의 1도 안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2008볼런티어21 조사).

볼런티어21은 10년 넘게 자원봉사자, 리더, 관리자, 강사들을 교육하면서 수도 없이

목표를 새롭게 세웠다. 그 과정에는 항상 두 가지 큰 고민이 있었다. ‘우리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자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라는 것과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하는가?’ (또는 ‘하고싶은가?’).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한 흥미와 당위에 관한 고민이다. 시민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흥미와 당위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1년을 마치면서 지난해 우리는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얼마나 잘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비전을 얼마나 달성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된다.

흥미와 당위 사이에서 겪는 시민교육의 갈등

논의를 하기에 앞서 흥미와 당위에 대한 정의를 하고자 한다. 흥미(興味, interest)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하려고 하는 감정·경향 혹은 태도이다. 흥미는 관심(concern)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물에 내재한 가능성과 관계 맺어져 있다는 것, 따라서 이들 사물이 그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는가에 그가 신경을 쓴다는 것, 어떤 특정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자꾸만 행동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당위(當爲, Solen)는 현재에 존재하고(Sein), 또한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시민교육에서 흥미가 수요자의 의지의 발로라면 당위는 공급자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을 기획하면서 흥미로우면서도 가치 있는 교육을 만들어서 필요한 교육을 감동적으로 성황리에 마치는 꿈을 항상 꾀다. 시민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직의 성향에 따라 혹은 교육활동가 자신의 주관에 따라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관점을 적절히 섞어내려고 할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언제나 이상적이겠지만 그 일이 쉽다면 이런 논의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놓고 시민교육의 위치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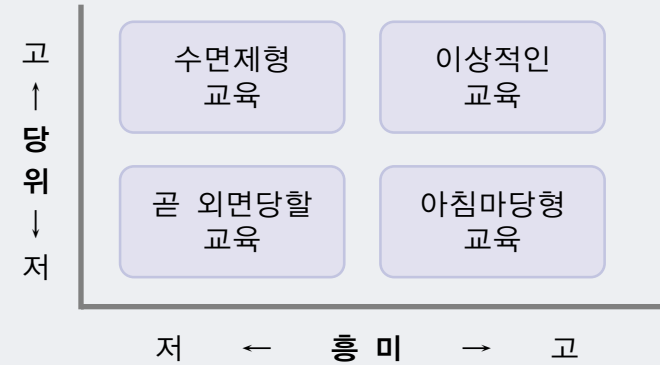
첫 번째, 당위만 있고 수요자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교육으로 교육 참가자들을 모두 잠재우는 수면제형 교육이 있을 것이다. 이런 교육의 교육자는 대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홀로 심취하여 교육을 마치고 나서는 아직도 시민교육의 갈 길은 멀고 험하다고 탄식하곤 한다.

두 번째는 교육장을 웃음바다로 만드는 교육으로 흥미로운 주제와 재밌는 교육, 참가자의 관심사에 딱딱 와 닿는 내용이다. 참가자 평가 설문결과는 “너무 재밌었어요”, “강사님의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등 교육의 목적과는 다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아침마당형 교육으로 구분했는데, 교육 참가자들이 본연의 생활로 돌아갔을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흥미롭지 않아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당위성마저도 약한 교육이다. 이런 교육은 어떻게든 몇 번은 버텨낼 수 있을지라도 곧 외면당할 교육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른바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불행해지는 교육이다.

자, 이제 마지막인 네 번째 경우이다. 우리 모두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경우이다. 교육 홍보물을 게시판에 올리는 순간 수백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참가신청이 쇄도하여 눈물을 머금고 대기자를 받아야하는 사태, 교육의 순간에 참가자들은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시간은 야속하게 지나가고 쉬는 시간에도 교육자와 토론이 이어져 진행자는 저녁 식사 시간을 미뤄야 하는 사태, 교육이 끝나고 난 후에는 자발적인 후속모임이 꾸려져 공부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겠다는 의지로 실천 활동으로 이어지는 사태, 교육 후에 삶이 너무 행복해지고 의미 있게 변화했다는 전언이 이어지는 사태.

이제, 교육활동가들의 입장충동에 대해 존 듀이의 흥미론을 빌려와 해석해보자.



존 듀이의 흥미론

당위와 흥미의 높고 낮음에 따라 4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교육을 구분해보았다. 몇몇 훌륭한 교육활동가들은 이미 이상적인 수준에 가까이 가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교육활동가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 당위와 흥미가 모두 낮은 수준인 곧 외면당하는 교육으로 가고 있는 자들까지 구제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아침마당형과 수면제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동지들과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해 진단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4분면 중에 어디에 더 치우쳐있는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길 권한다. 어쨌든 대부분은 당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흥미가 낮을 것이고 흥미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당위가 낮을 것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당위를 더 높이거나 흥미를 더 높이거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교육활동가들이 당위보다는 흥미에 더 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당위에 흥미의 옷을 입히기 위해 교육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의 교육적 흥미론을 살펴보겠다.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민주주의와 교육/철학의 개조(Democracy and Education Reconstruction in Philosophy)』에서 흥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목표 · 의도 · 목적이라는 말은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신경을 쓰거나 주의 깊은 열성과 같은 인간 쪽의 태도를 당연한 일로

전제하는 것이다. 흥미·애정·관심·동기부여라는 말은, 예지된 것이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갖는 관계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행동하고 싶다는 그의 능동적 욕구를 강조한다. 이들은 객체 쪽의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다.”(존 듀이, 『민주주의와 교육-철학의 개조』, 2008)

목적, 즉 그가 말하는 당위와 흥미는 그 전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시민들이 흥미 없어 하고 교육의 내용에 마음이 닿아있지 않는 이유는 그 주제가 그들의 관심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자원봉사는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할 만큼 능동적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교육의 목적도 달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흥미를 불러일으켜 객체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자신과 관계가 있다는 의식을 낳게 하여 그 주제가 전적으로 무관심해도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흥미는 어원적으로 ‘사이에 있는 것’-원래 떨어져 있는 두 가지를 잇는 것-을 암시한다. 시민과 우리가 말하고자하는 어떤 주제의 사이에 있는 것 그 두 가지를 이어주는 것이 흥미이다.

교육에서의 흥미는 목적을 갖는 모든 경험에서 대상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의미한다. 피교육자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피교육자 자신이 관계된 활동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공급받는 교육의 내용이 차지하는 지위를 피교육자가 잘 이해해야 한다. 대상이나 주제가, 목적 있는 활동을 촉진하는 일과 맺는 관계가 바로 교육에서의 진정한 흥미이다.

흥미와 당위 그리고 의미

4가지 유형에 대한 진단을 하고 어느 부분을 강화해야하는가에 대해 확인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의 문제가 남아있다. 시민교육에서 흥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단지 말초적인 재미로 왜곡될 수 있다. 반면 ‘~이 좋다’, ‘~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내용만이 나열되면 이는 강요나 따분한 훈계로 변하기 쉽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시민교육 활동가들이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심에 놓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삶의 의미’에 다가가는 교육이



그것이다. 의미 있는 삶은 참된 기쁨, 인정받는 것, 존엄성을 확인하는 것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좋은 음식은 입에 달라붙지 않으며, 좋은 말은 따분하기 마련이지만, 시민교육은 '좋은 말'을 전해야 하는 숙명이 있다. 그렇다면 그 균형의 지점은 어디일까? 결국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부터 단초가 풀리는데, 학습자가 원하는 것, 흥미를 갖게 되는 지점은 뭘까? 이를 테면 5·18민중항쟁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말에는 얼굴을 찌푸리는데도 왜 얼마전 상영했던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는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두었을까? 바로 '좋은 말'의 이면에 있는 그 어떤 것. 즉 말과 달리 영화는 말의 이면에 있는 좋은 의미에 닿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 아닐까? 거기에 배우들의 좋은 연기와 좋은 시나리오가 주는 재미와 감동은 양념으로써 맛을 더했다. 단지 좋은 말은 귀로 들어가 머리에 저장되지만, 좋은 의미는 가슴으로 들어가 학습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시민교육이 추구해야 할 흥미, 즉 당위와 흥미의 만나는 지점이 아닐까.

글 서미화 | 볼런티어21 사업운영팀장